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지속된 3월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에서 염부꾼이 파란 하늘 아래 꽃피운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물길 회복... 영산강 본모습 찾고 있다”

수문 개방 1년...녹조 사라지고 8종 5000여개체 증가
광주환경연합 “생태계 회복 단계...보 해체·상시개방 해야”

광주 환경단체가 4대강 수문 개방 1주년을 맞아 영산강 보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3일 4대강 수문 첫 상시개방 1년 기념 논평을 내고 “영산강 수문 개방 이후 녹조가 없어지고 물길이 회복하는 등 강의 본 모습을 되찾고 있다”며 “이제는 상시개방 유지와 보 해체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1일 영산강 죽산보(나주시 다시면) 수문을 보 설치 이후 처음으로 개방한 데 이어 10월 승촌보를 완

전개방했다. 환경연합은 보 개방으로 녹조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생태계가 회복 단계에 접어드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영산강 일대 하천 건강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 영산강 상류(승촌보 상류~담양호 하류)에서 관찰된 생물은 35종, 3106개체에서 지난해 12월에는 43종, 8628개체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산강 중류(풍탄대교~승촌보)에서

관찰된 조류 개체수도 1489개에서 2884개로 늘었다. 멸종 위기 동물인 삵과 수달, 고라니 등의 발자국도 발견됐다. 환경연합은 현재까지 녹조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죽산보는 완전 개방이 아니고 승촌보 역시 막힌 구간이 있어 언제라도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연합은 “현재 환경부에서 수질을 포함한 용수 이용 등에 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평가 결과는 완전개방 시점으로 1년 후인 올 연말 나올 예정이며, 보 존폐문제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환경연합은 이와 함께 유속이 보 건설 이전 보다 느린 점을 들어 보 구조물이 물

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 구조물 가까이에 퇴적물이 쌓여 썩고 있으며 수생 생물의 이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 죽산보의 유속은 2010년 0.973%, 2011년 0.705%에서 공사 이후인 2012년 0.021%로 급감했고 지난해 0.065%, 올해 0.030%로 나타났다. 환경연합은 남겨진 과제로 보 개방 확대, 보 해체를 강조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보만 없어진다고 수질 개선이나 환경 회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영산강 분류와 지류, 유역권의 대책이 함께 마련돼 강다운 모습과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집단폭력 흥기 사용시 구속수사 원칙

‘광주폭행’ 재발방지책 마련...공무원 상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이 지난 4월 발생한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당시 현장 경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집단폭력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총력 대응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 체계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집단폭력과 같은 중대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112종합상황실, 형사 등 관련 기능이 집단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해 불법 현장을 신속히 제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집단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현장에서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인물 제압을 위해 수갑 등 경찰장구를 적극 사용하고, 112종합상황실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지휘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흥기 사용, 위험물 휴대, 사망·중상해 발생, 상습범행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발생 단계부터 일

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대응을 맡는다. 소방관·경찰관 등 제복공무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없도록 이달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해 경찰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 사용 실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인권진단을 받는다. 현장 경찰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법 집행을 나서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책도 강화한다. 경찰은 현

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해 가해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 현행법 체포나 유치장 유치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자체적으로는 적법한 현장 대응 결과 소송이나 진정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관을 위한 소송지원팀을 운용해 개인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소송당한 경찰관에게 변호사 선임료, 형사합의금, 손해배상액, 공탁금 등이 지원되도록 법률보험 계약도 체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뜨기 05:19 달뜨기 23:59
해지기 19:43 달지기 09:55

다시 평년 기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17/28	보성	구름많음	14/25
목포	구름많음	17/25	순천	구름많음	17/27
여수	구름많음	18/26	영광	구름많음	15/27
나주	구름많음	15/28	진도	구름많음	16/25
완도	구름많음	17/25	전주	구름많음	17/28
구례	구름많음	15/28	군산	구름많음	16/26
강진	구름많음	16/26	남원	구름많음	15/27
해남	구름많음	15/26	흑산도	구름많음	16/22
장성	구름많음	14/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먼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1.0~1.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먼바다(동)	동~남동	0.5~1.0	동~남동	1.0~1.5
서부	먼바다(서)	동~남동	0.5~1.5	동~남동	1.0~1.5

◇ 생활지수

	주의
	높음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57 22:46	05:37 17:33
여수	간조	만조
	06:25 18:07	00:08 12:13

◇ 주간 날씨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8/24	18/28	18/28	18/29	18/29	18/28	17/27

한풀 꺾인 무더위...내일 오전부터 비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3일 오후 해제되면서 이번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일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따뜻한 남서류와 강한 일사로 인해 30도가 넘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4일부터는 구름이 끼고 일사량이 줄어들어 평년기온(23.9~27.5도)과 비슷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은 5일 오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큰 비는 아닌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도~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24도 분포를 보여줬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고생 성추행’ 교장 직위해제

법인 이사장 사퇴...광주시교육청·경찰, 학교 조사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고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광주 A고교 교장이 직위해제 됐다. 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열린 해당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이 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법인 이사회 이사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학교는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도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학교 교장은 최근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교육청에도 이 같은 의혹이 담긴 민원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이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상당수 여학생이 교장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법인에 중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062) 362-3336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